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맞손'

도교육청, 학교 석면 안전관리 민관협의회 개최
올 겨울방학 중 54개 학교 대상 석면 해체 공사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민·관이 손을 맞잡았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오후 6층 회의실에서 학교 석면 안전관리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2024년까지 학교 석면 해체·제거 공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민관이 협력 체제를 구축해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

성됐다. 위원으로는 분청 시설과장, 담당사무관, 담당주무관 등 당원직 3명과 학교 관계자 2명, 시민단체 2명, 외부전문가 3명 등 총 10명이 참여한다. 위원장은 건축사사무소 태호건축의 소태호 건축사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3년 여름방학 석면 해체·제거 시 현장 점검 결과 보고 △2023년 겨울방학 중 석면 해

체·제거학교 점검·관리방안 논의 △겨울방학 석면 모니터링 교육에 관한 논의 △기타 석면 안전관리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한편 도교육청은 올겨울방학 중 54개교에 대해 석면 해체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주 시설과장은 "민관협의회에서는 학교 석면 해체·제거공사 관련 수시 모니터링 실시, 결과 평가 및 개선방향 등을 논의한다"면서 "외부전문가의 참여로 부족한 행정력을 보완하고, 보다 더 투명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지난달 30일 전북대학교를 찾은 태국 교육관계자와 중등 교장단이 양오봉 총장과 조하림 국제처장과 면담을 마친 뒤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해외 초·중·고교와 연대, 유학생 조기 확보 나서

전북대, 태국 중등교장단과 유학생 유치 협력

외국인 유학생 5천 명 유치에 나선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해외대학뿐만 아니라 초·중·고교와의 연대를 통한 유학생 조기 확보에 나서 성과를 기대한다. 전북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태국 교육관계자와 중등 교장단을 초청해 한국 방문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방문 프로그램은 태국 한국 교육원에서 한국과 태국 간 교육 교류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태국 교육부 관계자 3명과 중등학교 교장단 7명이 1일까지 전북대를 비롯한 국내 곳곳을 탐방한다.

앞서 지난달 21~22일 전북대를 찾은 몽골 4곳의 초중고 교장단과 우수한 학생을 전북대에 보내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바 있는 전북대는 이번 태국 교육부 관계자 및 중등학교 교장단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조기 유학생 유치로 연결시킨다는 계획이다. 태국 방문단은 AI 교육선도학교인 청양군 정산중학교를 방문해 국내 우수 중등교육 현장과 서울 경복궁과 전주 한옥마을, 익산 미륵사지 등 국내 주요 문화재를 둘러봤다. 이어 30일에는 전북대를 찾아 양오봉 총장을 접견하고, 조하림 국제처장

을 만나 태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 지원과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조하림 국제처장은 글로컬대학30 사업을 통한 전북대의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계획과 해외 대학과의 협력 우수사례 등을 설명했다. 양오봉 총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대한민국의 우수한 교육환경과 전통 문화를 태국 교육관계자 및 중등학교 교장단에게 소개할 수 있어 기쁘다"며 "긴밀한 협력체계를 이어나가 태국의 우수한 학생들이 전북대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기양성사업단은 '17기 GTEP 전자상거래 경진대회'에서 창업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전자상거래 경진 창업부문 '최우수'

전북대 GTEP 사업단

전북대학교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기양성사업단(이하 GTEP사업단, 단장 김민호)은 '17기 GTEP 전자상거래 경진대회'에서 창업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상권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대회에서 T-studio팀(오가연, 문의연, 박중승, 윤서희)은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인 '노션 템플릿', '디지털 문구'로 창업 과정을 수행했다. 아이템을 직접 제작하고 무체물 전용 플랫폼 '검로드'에 업로드 후 SNS(인스타그램, 유튜브 등)를 활용한 내·외부마케팅을 진행했다. 특히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국내 저작권 등록과 상표 등록을 진행, 인

스타그램의 유튜브 쇼츠 기능의 릴스를 활용해 콘텐츠 도달률을 극대화했다. 이에 지금껏 시도하지 않았던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이용해 전자상거래 창업에 도전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T Studio 팀은 향후 미국과 일본 등 지역 특화 제품을 제작하고 있으며 추후 온오프라인 전시를 통해 시장을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김민호 단장은 "열정적인 우리 학생들이 새로운 전자상거래 창업에 도전해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꿈을 가진 예비 창업 학생들을 다각도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독일학과, 2일 인문대학서 한·독 수교 140주년 성탄 파티

전북대학교 독일학과(학과장 유수연)가 올겨울 한·독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주한 독일대사관과 함께 12월 2일 오후 2시부터 인문대학 1호관에서 '전주에서 즐기는 독일의 크리스마스 파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9월 전주시 일원에서 열린 2023 전주 독일문화주간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난 5월 이뤄진 업무협약의 과정에서 나온 구체적인 실현프로젝트 일환이다. 한·독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며 전주에서 이뤄지는 독일식 크리스마스 파티에는 전북대 학생들은 물론 전주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다. 이는 주한독일문화원은 소정의 경제적 지원과, 독일학과 교수진 및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 특히 독일학과의 원어민 교수인 안네 가이게스(Anne Geiges) 교수는 지난 9월 '전주 독일문화 주간 행사'에 이어 이번 크리스마스 파티에서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또 독일의 전통적인 크리스마스 케이크와 글뤼하인(Glühwein)을 직접 요리하는 등 전주 시민들에게 독일 문화를 알리고 있다. 전북대 유수연 독일학과장은 "독일을 위시한 유럽 연합국가들과 전주시의 다양한 문화교류를 위한 작지만 매우 의미있는 첫 걸음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스마트팜 분야 우수연구 성과

전북대 스마트팜학과 석승원 학부생·김솔희 연구조교수
한국농공학회 학술발표대회서 각각 우수논문발표상 수상



석승원 학부생



김솔희 연구조교수

결정 시스템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석승원 학생은 학부생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에 대한 열정과 노력으로 대학원생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촉망받는 미래 연구 동량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팜학과 연구조교수인 김솔희 박사도 '노지 스마트팜 도입에 따른 과채류 생산단계 탄소배출량 평가'라는 연구를 통해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의 스마트팜 기술 도입전후 변화량을 분석해 우수상을 받았다. 김태곤 스마트팜학과 학과장은 "석승원 학생과 김솔희 연구조교수의 연구 성과는 우리나라 미래 농업인 스마트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더 나아가 저탄소 농업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생체역학회 공동학술대회
오늘부터 이틀간 전북대서

대한생체역학회(회장 권대규)는 1~2일 이틀간 전북대 국제컨벤션센터에서 '2023 대한생체역학회 & 한국운동역학회'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바이오헬스공학으로의 확장(대한생체역학회)'과 '스포츠 및 헬스과학으로의 확장(한국운동역학회)'을 주제로 국내외 생체·운동역학 분야학자, 기업·연구소·병원 등 다양한 헬스케어산업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해 최신 연구결과 90여 편을 발표한다. 9인의 기조강연과 함께 △재활보조공학, △빅데이터 동작분석, △운동제어역학, △근골격계-족부 생체역학, △트레이닝역학, △스포츠차별, 근골격계 운동역학,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인공관절 생체역학 등 새로운 생체·운동역학 분야 연구결과를 통해 바이오헬스공학 발전을 모색한다. 권대규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바이오헬스공학 생체·운동역학 연구분야의 디지털 바이오헬스 패러다임을 주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학술 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교육공공데이터 활용역량 강화 교육... 오늘까지

전북도교육청은 11월 30일과 12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교육공공데이터 활용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분청 및 지속기관, 그리고 지역교육지원청 교육희망자 6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는 정책을 수립하고 의사결정할 때 교육공공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더불어, 증거기반 과학 행정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교육은 교육정보통계시스템(EDS) 기능 안내 및 통계보고서 생성 실습, 교육공공데이터 분석과 시각화 사례를 알아보고, 시각화 프로그램을 활용한 실습 등으로 이뤄진다. 한편 교육정보통계시스템(EDS)은 나이스, K-에듀파크, 교육통계, 정보공시 등 교육공공데이터를 모아놓은 시스템으로 교육정책 수립·분석·평가를 필요해 데이터 자료를 제공한다. 조철호 행정과장은 "이번 교육으로 데이터 활용역량을 강화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수립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미래학교 교육과정 운영 대비

도교육청, 전북미래교육 현장지원단 역량 강화 워크숍
컨설팅 성과 공유·미래역량·기초학력 신장 등 소개

전북도교육청은 30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전북미래교육 현장지원단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2024년 전북미래학교(66교) 교원과 현장지원단 등 17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전북대학교 김명섭 교수가 '미래교육 전환! 기초학력 보장'을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김 교수는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AI 코스웨어 기반 기초학력 보장과 학교교육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유치원 및 초·중·고 컨설팅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컨설팅 시작시 학교 구성원과의 편안한 분위기 형성, 학생미래역량교육, 기초학력 신장, 수업혁신,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성장과정 사례,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 방안 등을 소개했다. /장은성 기자



민완성 미래교육과장은 "이번 워크숍은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과 전북미래교육 비전을 공유하고, 현장지원단에는 컨설팅 역량을, 전북미래학교에는 교육과정 운영을 대비하는 자리였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전북미래교육의 실현 방향을 모색하고, 학교 교육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미래학교 현장지원단은 교원, 수석교사, 교육전문직원 등으로 구성, 전북미래학교의 실질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활동한다. /장은성 기자

호원대 진로심리상담센터
현직자와 함께하는 진로멘토링

호원대학교 진로심리상담센터에서는 지난달 1~30일까지 매주 1회씩 4회에 걸쳐 현직자와 함께하는 진로직업멘토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직업진로멘토링에는 물리치료학과 등 3개 학과, 30여 명이 참여했다. 이 프로그램은 현직자 직무내용과 과제수행 및 개발 피드백 등 실무현장의 간접경험 및 과제수행을 통해 전공 맞춤형 직무 경험을 쌓아 실무에 이해하고, 진로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진로실현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 전 참여자들에게 구직준비도 검사 실시 후 진로심리상담센터 전문상담사와의 진로상담을 연계해 개인의 심리적 특성 및 취업준비에 대한 자기이해를 돕고, 또 현직자와의 멘토링을 통해 실무사례 및 직업의 이해를 돕고, 끝으로 실무 현장 탐방을 통해 산업구조의 이해 및 진로 실현을 위한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를 갖는다. 직업진로멘토링에 참가한 참가자는 "졸업을 앞두고 전공관련 현직자와의 멘토링 활동을 통해 실무현장의 생생한 경험과 정보를 들을 수 있어 유익했다"며 "무엇보다 진로선택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회복되는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학교는 지난달 30일 지역혁신관에서 에어서울(대표 조진만)과 산학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주대-에어서울, 산학협력 협약 체결

항공 전문인력 양성 위한 신규인력 유치 필요 정보 제공 등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달 30일 지역혁신관에서 에어서울(대표 조진만)과 산학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주대 관광경영학과 류인평 학과장과 에어서울 정창권 객실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 사항은 항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신규 인력 유치에 필요한 정보 제공, 공항 서비스, 항공 서비스 현장 실무실습 기회 제공 등이다. /장은성 기자

류인평 학과장은 "이번 에어서울과의 산학협력 협약은 단순한 상호교류의 차원을 넘어 관광경영학과 학생들에게 더욱 내실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에어서울은 2015년 설립돼 국내선은 물론 일본, 중국 등남아까지 노선을 확장하고 있다. 2023년 3분기 창사 이후 최고 실적을 보이며 국내 항공사 중 영업이익률 1위를 기록하는 등 국내 대표 저비용항공사(LCC)다. /장은성 기자